

# ARF 외교전 개막...한일갈등 변곡점 될까

(아세안 안보포럼)

### 아세안 외교 수장 방콕 집결 폼페이오 "한미일 회담 추진" 강경화·고노 회담 가능성 커 북한 비핵화 메시지도 관심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수장들이 아세안 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속속 집결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후 방콕에 도착할 예정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도 시차를 두고 태국에 발을 들인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도 전날 방콕에 도착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부터 다음 달 1일 오

전까지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8명 안팎의 다른 국가 외교장관과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 여부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측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일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보복조치에 나선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달 31일~다음 달 1일 사이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회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이 고노 외무상을 만난다면 양측은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말도

특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이달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막판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각종 다자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 등 일련의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정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자회담과 다자회의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펼칠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렸던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방콕에서도 치열한 한일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ARF는 북한이 가입한 유일한 여대안 협의회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 전 약속한 실무협상 개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도 관심을 끈다. 애초 북한과 미국이 이번 ARF를 계기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으로 물거품이 됐다.  
리 외무상은 ARF 준비 단계만 하더라도 의장국인 태국에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달 중순 돌연 불참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하면서 이번 ARF에서 유의미한 북미 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리 외무상을 대신한 참석자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회견 등을 통해 밝힐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방콕에 집결할 것으로 전해져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평화의 소녀상' 日 공공미술관 첫 전시

### 김운성·김서경 작가 작품 '아이치 트리엔날레' 출품 시민사회 우익테러 감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대형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다. 31일 아이치 트리엔날레와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1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서 전시된다.  
전시되는 평화의 소녀상은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작품으로, 작가들이 2015년 일본 시민들에게 맡긴 것이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모습이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60만명 안팎이 관람하는 대형 예술제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나고야 시내의 아이치현 미술관에 전시된다.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공공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작은 모형이 2012년 도쿄도미술관에서 전시됐지만 철거됐고, 이후 2015년 도쿄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표현의 부자유전'에서 전시된

적 있다.  
이 '표현의 부자유전'은 전시 중 철거된 작품들을 모은 전시회였는데, 이번 기획전은 당시 갤러리에 전시됐던 작품들과 이후 철거된 적 있는 작품 20여점을 소개한다.  
이번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수요시위 천병재를 맞이함 에 그 숭고한 역사와 정신을 잇고자 이 평화비를 세우다'라는 문구가 적힌 평화비와 함께 전시된다. 이와 함께 작은 모형의 평화의 소녀상도 같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주최 측이 이번 기획전을 마련한 것은 일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손상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다만 평화의 소녀상 전시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우익들이 방해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본의 한 극우 인사는 지난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놓는 '말뚝 테러'를 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우익들의 방해 우려해 경찰에 경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시 기간 전시장 주변에는 일본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대로 우익들의 방해를 감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이혼 3번 외치면 남남 이슬람 관습 인도에선 앞으로 처벌

기혼 남성이 '탈라크'(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트리플 탈라크)이 인도에서 법으로 금지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는 인도 연방 상원이 전날 트리플 탈라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트리플 탈라크를 이용해 이혼하는 남성에게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2017년 8월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간 야당 반대로 상원 통과가 지연됐다.  
집권 인도국민당(BJP)은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과 함께 남성이 수감될 경우 남은 아내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트리플 탈라크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야당 분열까지 겹치면서 결국,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찬성표와 반대표는 각각 99표와 84표였다. /연합뉴스



바람과 폭우 뚫고...식물줄 모르는 홍콩 시위  
지난 31일 홍콩 동부 법원 앞에 모인 시위자들이 강한 바람과 폭우 속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신장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 인권침해 반박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와 관련한 인권침해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31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웨커라이디 자커얼 자치구 주석 등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베이징에서 연 '아름다운 신장

센터'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짜커얼 자치구 주석은 "우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세계의 테러 활동에 휩쓸렸거나 극단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최대한 구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직업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많은 곳에 직업기능교육 훈련센터를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설립했다"며 "감금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판문점서 김정은 만날때 비핵화 조건 북한 물품 무관세 약속"

日 아사히신문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당시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하면 북한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입품을 무관세로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 되려면 북한의 대외 무역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며, 만약 북한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한다면 미국은 전체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을 비핵

화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사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런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빅딜'에서 북한에 비핵화보다 정도가 낮은 '동결'을 요구해 협상을 진행하는 '스몰딜'로 전략 전환을 검토하고도 전했다.  
아사히는 또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사이에 북한의 경제건설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신의주 경제특구의 진흥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신문은 시 주석이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 Auction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각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